

흩어져 있는 현대사상의 '함께 보기'

BBC 라디오프로 「거대이론에의 복귀」와 우리의 읽기

李重漢

서울신문논설위원 · 출판평론가

우리가 잘 아는 케네드 갈브레이드교수가 왔다 갔던 서울올림픽국제학술회의 '후기산업사회와 세계공동체'의 조직에 참여하면서 뜻밖에 놀랐던 일이 하나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유럽의 석학 자격으로 초청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막상 그를 초청하려는 절차과정에서 그가 누구냐는 반문이 너무나 많이 쏟아졌다. 이 사태는 사실 프랑스에서까지 마찬가지였다. 유럽학자 조직의 거점을 맡았던 유럽아카데미라는 그룹에서도 그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되물었다. 물론 그는 초청되지 않았고 지금도 그는 어디엔가 은거하고 있는, 그리고 아직 덜 알려진 학자로서 서울올림픽국제학술회의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자크 데리다는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다. 그의 주저서는 아직 번역된 것이 없지만 그의 이름과 그의 사상은 많은 비평문헌에 나타나 있다. 특히 문학과 구조주의에 관심을 가진 논의들에서 그는 낯익은 오늘의 사상가다.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 대한 이론”

자크 데리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이 현대사상은 아직 황적으로 공동의 인식 속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개별적으로 개성적인 주장과 의견이 산재돼 있고, 그 산재된 사상의 또 여러 조각난 인상들이 이곳저곳에서 떠돌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현대사상의 산재된 경향을 하나로 묶어 총괄적으로 조감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소개해 두려 한다. 물론 이왕 느낀 바가 있었던 자크 데리다가 들어 있는 모델이다.

「인문과학에 있어서 거대이론에의 복귀」(The Return of Grand Theory in the Human Science)라는 책이 있다. 영국 캠브리지대 출판부에서 1985년에 간행된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은 책으로 씌어졌던 저작물은 아니다. BBC 제3라디오 프로그램으로 1984년에 방송됐던 방송원고들의 재편집이다. 방송의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라이트 밀즈에 의하면 ‘거대이론’은 사회에 관련된 학문들이 그들의 제1차적 목적을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 대한 체계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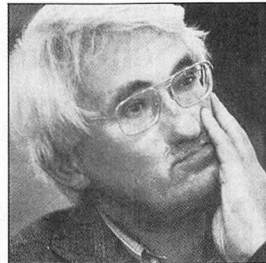
이론의 구성이라고 보는 데서 이루어진 추상적인 이론들이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영미학문의 주류적인 경향은 이러한 추상적이고도 규범적인 거대이론에 적대감을 표현했고 그 대안을 실증주의에서 찾았다.

그러나 이러한 한 세대의 실증주의적 주류의 학문경향은 이제 다시 한번 완전한 역전을 보았다. 유도과아적인 사회철학이 재생하였으며, 경험주의적·실증주의적 입장은 이제 해석학자들, 구조주의자들 그리고 해체론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비판과 공격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럼으로써 또 좌초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같은 소용돌이가 거의 진정되어가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침전되어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볼 때가 되었다.”

이에 대한 검토, 즉 이러한 관점에서의 현대사상의 전환 양상에 대한 통괄적 조감을 시도했던 것이 이 책이며, 동시에 방송프로그램이었다. 도대체 이런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경이로운 일이다. 이 조감에 선정된 사상가들은 8명의 학자와 한개의 학자그룹이다.

1. 한스-게오르크 가다머(Hans-Georg Gadamer, 1900~)
 2.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
 3.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
 4. 토마스 쿤(Thomas Samuel Kuhn, 1922~)
 5. 존 롤즈(John Rawls, 1921~)
 6.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 1929~)
 7. 루이 알튀세(Louis Althusser, 1918~)
 8.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Claude Levi-Strauss, 1908~)
 9. 아날학파의 역사가들 (대표자들)
- 1세대 마르크 블로흐(Marc Bloch)뤼시앙 페브르(Lucien Febvre)
2세대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 (거점) 1946년 시작된 잡지 「아날: 경제·사회·문명」 (Annales: Economics, Sociétés, Civilisations)



위르겐 하버마스



미셸 푸코



레비스트로스

전환하는 현대사상의 경향

단순하게 ‘알려져 있느냐’로만 볼 때 이들은 우리에게 제법 잘 알려져 있다. 가다머만 빼고는 그가 누구인가를 상당히 알고 있고, 자크 데리다와 아날학파의 일부만 빼고는 대표저서들이 또 한권씩은 번역돼 있다.

그러나 전환하는 현대사상의 경향과 조류로서 이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거나 또는 연계되어지는 것이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수용은 너무나 개별적이라는 지적도 할 수 있다. 토마스 쿤은 과학과 사회과학의 일부에서, 레비-스트로스는 인류학에서, 아날학파는 서양사학의 일부에서, 위르겐 하버마스는 좌파사상가로서, 그리고 나머지는 문학비평의 일각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관심의 범위도 필요한 만큼 인용한다는 선에서의 제한적 일 뿐이다.

그러나 이 책이 시도하려는 바는 이렇게 협소한 사상의 보기가 아니다. 이 책에 선택된 사상가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특징을 이 책의 편자 켈턴 스키너(Quentin Skinner·캠브리지대 정치학교수·유럽지성사)는 이렇게 표현하였다.

“내가 선택한 이들의 공통적 특징은 지역적 요소와 우연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고유한 개념과 태도들이 어느 정도는 특수한 역사적 환경들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는 것에 주목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이론화하려는가 단일한 설명의 체계를 만들려는 경향에 대해 크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반감이 어떤 경우에는 거의 자기파괴적인 수준에까지 도달해서 경험적·실증적 자료들의 체계화이론과 방법 자체를 말살하려는 노력에까지 도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자나 사상가들을 거대이론가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모순처

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가지 답변을 할 수 있다.

하나는, 이들이 이론정립 작업에 반대하면서도 실은 그 자신이 또하나의 이론을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 푸코는 지식의 본성에 관한 일반론을 개진했고, 비트겐슈타인이 의미와 이해에 대해 설명을 제시해주었으며, 해석학을 해체하는 것이 우리의 다음번 과제라고 말한 데리다조차도 해석들을 새로이 구성할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들이 ‘다목적적 전복들(all-purpose subversives)’에 대한 개관을 마련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다시 해야 할 일이 절반 이상이나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개념이란 원래 고정된 의미를 지닌 초시간적 실체가 아니고 ‘무기로서’(하이데거의 주장) ‘도구로서’(비트겐슈타인의 주장) 고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누가 어떤 목적에서 그것을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인식의 과제이다.”

한스-게오르크 가다머를 집필한 또다른 필자 윌리엄 오스웨이트(William Outhwaite)도 이런 기술을 한다.

“이 책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대이론가들’은 완전히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현상들에 의미와 의의를 부여해주는 기본틀(Framework)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거의 일치한다. 예컨대 쿤의 패러다임 혹은 학문 분과의 매트릭스들, 알튀세의 문제들(Problématiques), 푸코의 언설들과 체제들이 그러하다. 이 모든 기본틀들은 이해에 이르는 길잡이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행동에 대한 길잡이이기도 하다. 입자물리학의 학적 매트릭스는 입자 물리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가능하게 해 줄 뿐

아니라, 그들과의 동참을 가능하게 해준다. 마르크스의 과학적 문제들에 대한 알튀세의 재구성은 마르크스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마르크스 업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나아가서는 마르크스주의 내부의 전문화된 지엽적 이론들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의도되었다. 푸코의 기본틀들은 얼핏 보면 외적인 역사서술에 가까워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현대 유럽의 진리·권력의 체제에 어쩔 수 없이 연루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터무니없이 낮은 우리의 '읽기 수준'

여기서 이들을 전부 다 요약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저서들 중 지금 우리에게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몇권씩 그 목록을 제시하고자(나오지 않은 것은 ●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도서목록들을 한군데 모아보는 시야를 가져본다는 일도 세계의 오늘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두려한다.

▲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

- 「진리와 방법」
- 「방법의 도전」
- 「방법의 피안」
- 「과학시대에 있어서의 이성」
- 「철학적 해석학」

▲ 자끄 데리다

- 「자극들 : 니이체의 문제」
- 「파에돈(Phaedrus)」
- 「그라마톨로지에 대하여」
- 「철학의 주변」
- 「소리와 현상」

▲ 미셸 푸코

- 「말과 사물」
- 「감시와 처벌」
- 「임상의학의 탄생」
- 「지식의 고고학」
- 「성의 역사」

▲ 토마스 쿤

- 「과학혁명의 구조」
- 「본질적 긴장관계」
- 「코페르니쿠스 혁명」
- 「흑체이론」(Black Body Theory)

▲ 존 롤즈

- 「정의론」

(그의 「정의론」은 우리에게서 「사회 정의론」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들로 역간돼 있다.)

▲ 위르겐 하버마스

- 「인식과 관심」
- 「정당성의 위기」
- 「의사소통의 행위이론」

▲ 루이 알튀세

- 「마르크스 讀論」
- 「자본론 解讀」
- 「독일 이데올로기」

▲ 끌로드 레비-스트로스

- 「슬픈 열대」
- 「혈족관계의 기본구조」
- 「구조 인류학」
- 「가면의 방식」
- 「기본구조」
- 「신화학」
- 「토테미즘」

▲ 아날학파

- 마르크 블로흐 「봉건사회」
- 루시앙 페브르
- 「16세기에 있어서 불신앙의 문제」
- 페르낭 브로델
- 「지중해세계」
- 「물질·문명·경제·자본주의, 15-18세기」
- 「문명과 자본주의, 15-18세기」(3권)
 - ① 일상생활의 제구조 : 가능한 것의 관계
 - ② 상업의 수레바퀴
 - ③ 세계관

이 목록의 소개는 필자에게 있어서 또다른 의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수준의 내용이 어느 곳에서는 라디오프로로 공중에게도 전달되고 있는데, 우리에게서는 학문적 전문 영역에서도 그 편린들만 산재해 있다는 현상을 지적하려는 것이 그 첫째이고, 따라서 우리의 공중적 읽기와 전문적 읽기의 수준이라는 것이 다같이 터무니없이 낮은 차원의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하려는 것이 그 둘째이다. 그 다음에야 우리는 우리의 관점 넓히기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또 이번의 도서목록은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것이 분명하다. “어렵다, 어려워”라고 말이다.

저작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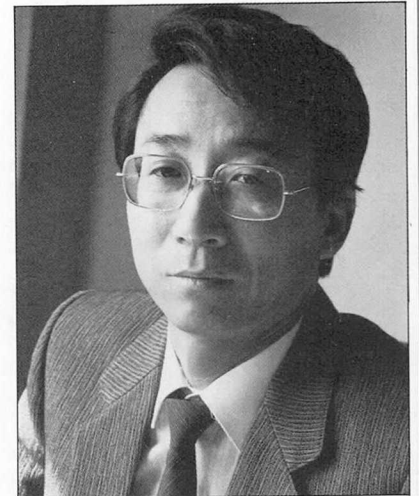
18세기 이후 유럽정신사의 맥락

「獨逸批評史」

金柱演

숙명여대 독문학과 교수 · 문학평론가

독일비평사는 독일문학의 범주를 넘어 철학·역사학·심리학과 사회과학에 깊이 연계됨으로써 현대사상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구상중인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된다.



구상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처지이지만 「獨逸批評史」는 나오서 쓰고 싶은, 또 써야 할 책이다. 나 자신 비평가이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독일문학도이기 때문이다. 사실 적지 않은 시간 각 대학에서 이 방면의 강의를 맡아왔고, 그 수준에서의 강의록을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 집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나 자신의 능력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그 대상이 방대하고, 집필 방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도 원인의 하나였다.

「獨逸批評史」(가칭)는 크게 삼분된다. 첫째는 헤르더(Herder) 레싱(Lessing)과 같은 18세기 비평가로부터 시작해서 쉐러(Scherer)의 19세기 비평에 이르는 제1기, 둘째는 비평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 전반인데, 여기에는 현상학과 비판이론 그리고 유명한 카이저(Kayser)가 포함된다. 아마도 이 부분이 결국 이 책의 주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셋째로는 1945년 이후의 현대비평인데, 지금 활약중인 현역 비평가 중심의 여러가지 방향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야우스 이저 등의 수용이론은 현대비평의 중요한 한 흐름을 대변한다. 이렇게 볼 때, 「獨逸批評史」는 단순한 문학평론 이상의 여러 학문분야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철학·역사학·심리학과 사회과학에 깊이 연계된다. 특히 ‘비판이론’(흔히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불린다)은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파악되는 많은 부분을 지니고 있으므로 현대사상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독일문학 비평의 역사를 훑어보는 일은, 18세기 이후 유럽 정신사의 정통적인 맥락을 쫓는 일과도

통하기에, 올바르고 또 완벽한 연구와 저술이란 나에게 매우 벅찬 일일 수밖에 없다.

독일은 ‘정신’의 나라다. 독일인들에게도 육체가 중요하고, 물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날카로운 감수성과 아름다운 미적 감각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이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데에 독일인들의 특성이 있다. 그것은 그것들의 결핍에 대한 독일인들의 극복의지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결핍의 땅’ 독일이 19세기 이후 세계사의 전면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정신’이 결국 독일 관념론을 낳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독일정신은 20세기 인문사회과학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된다. 현상학과 비판이론은 그 중심부를 형성하는 두개의 축이라 할 수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 이 둘이 이른바 좌파이론 / 우파이론으로 대별되는 오늘의 문학기론을 파생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비평사는 단순한 독일문학의 범주를 넘어 현대문학이론의 전반적 개관에 해당된다.

독일문학 비평이 한국문학 비평에 끼치는 영향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특히 벤야민(Benjamin)이나 아도르노(Adorno), 그리고 마르크제(Marcuse)와 같은 이름은 자주 인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독일 비평과의 관계에서 볼 때 올바른 위상 속에서 미흡하게 소개되고 있는 감이 있다. 따라서 우리 문학기론과의 관계는 항상 세밀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인 바, 이것은 외국문학 역시 우리가 읽고 우리가 쓰는 한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 문학의 일부여야 하기 때문이다.